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드림레터로 보는 또 다른 생각 그리고 나

윤O수 / 대O여자중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레터로 인해 또 다른 저 자신을 발견한 윤지수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드림레터란 꿈을 확신하게 해주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해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림레터는 중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더욱 얻은 것이 많은 것 같고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중학생들처럼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또 다른 시도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중학생들도 대다수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생이 되고 드림레터를 본 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평범한 여중생들처럼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뭘 귀찮게 여러 가지를 해봐 이미 난 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꿈이란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끝나고, 더 이상 시도해볼 필요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통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추천하는 또는 친구들이 잘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일을 꿈으로 가지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꿈은 한 번 정하면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친구들이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현재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길을 찾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간다면 분명 멋진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지금 당장 정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게 맞는 것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완성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배울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체험할 기회도 많을 텐데 벌써부터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꿈을 찾아가는 건 어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든 자신이 할 의지나 굳센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해본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마음껏 이 세상을 그려나갈,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O주 / 학부모

“엄마, 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리곤 해. 5살이 되던 이른 봄날, 넌 열심히 달력 뒷면에 그림을 그리다가 불쑥 그렇게 말했지. 작은 손에 크레파스를 보물처럼 꼭 쥐고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랗게 성장한 네 모습이 엄마는 참 대견스럽기만 했어.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너를 항상 보아왔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받아든 너의 적록색맹 판정은 너무나 충격이었어. 왜 하필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수없이 헛된 질문을 반복했지. 안 그래도 “무슨 남자애가 그림이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 몇몇 주변 사람들이, 네 색각 이상 판정이 당연히 네가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속상하기만 했어. 되돌아보면 엄마가 참 나약했던 것 같아. 그런 무심한 이야기들에 마음이 휘둘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런 엄마를 서서히 일깨워준 것은 한결같은 네 태도였지. 어른들의 비뚤어진 시선에도, 친구들의 철없는 놀림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는 그런 너를 통해 비로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위즈워드의 시구에 눈을 뜨게 되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네 그 깨끗한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그리고 네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너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색각 이상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마주하게 될 거야.

미술이라는 세계에서 너의 색각 이상을 ‘원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히 네 꿈을 펼쳐갈 네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의 가슴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 네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휩싸여 인생의 기적을 퇴락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엄마는 잘 알아. “그림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다부지게 말하던 네 안의 그 아이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렴. 네가 좋아하는 그것, 네가 평생 하고 싶은 그것을 마음껏 쫓아가다 보면,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거야.

2015. 8. 24

네 꿈을 힘껏 응원하는 엄마가